무수동 유회당 원림(何去園)의 산수체계와 공간구성

신상섭* · 김현욱* · 강현민**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우석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Natural Landscape System and Space Organization of Musudong Village's Yuhoidang Garden(Hageohwon)

Shin, Sang-Sup* · Kim, Hyun-Wuk* · Kang, Hyun-M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based on 〈Yuhoidangjib 有懷堂集〉(edited in 18th century), analysed the landscape system and cultural landscape elements of Yuhoidang(Hageowon 何去園) Garden in Musu-dong, Daejeon, and the findings are as in the following.

YuHoidang(Gwon Yijin 權以鎭) managed Hageowon Garden in Musu-dong, located on the southern branch of Mt. Bomun, to realize his utopia. The completion of Hageowon Garden was only possible due to his installation of a variety of facilities in family gravesite on the hill behind his house: Shimyoso(Samgeunjeongsa 三近精舍, in 1707), Naboji(納汚池, in 1713), Banhwanwon(in 1714) and expended exterior space(in 1727). With regard to the landscape system of the village, the main range of mountains consists of Mt. Daedun, Mt. Odae and Mt. Bomun. The main high mountain of the three is Mt. Bomun, where 'Blue Dragon' hill branches off on the east side(Eungbong), 'White Tiger' in the west(Cheongeun and Sajeong) and Ansan(inner mountain) in the south. The landscape system is featured by 'mountains in back and rivers in front'. The river in the south-west, with its source in Mt. Juryun is called as the 'Stream of outer perfect spot', while the 'Stream of inner perfect spot' rises from Eungbong, passing through the east part of the village into the south-western direction. Banhwanwon Garden(盤桓園) was created with the stream in the east and natural bedrocks, and its landscape elements includes Naboji, Hwalsudam, Gosudae, Sumi Waterfall, Dogyeong(path of peach trees), Odeeokdae(platform with persimmon trees), Maeryong(Japanese apricot tree), springs and observatories. An expanded version of Banhwanwon was Hageowon garden, where a series of 'water-trees-stone' including streams, four ponds, five observation platforms, three bamboo forests and Chukgyeongwon(縮景園) of an artificial hill gives the origin forest a scenic atmosphere. When it comes to semantics landscape elements, there are ① Yuhoidang to cherish the memory of a deceased parents, ② Naboji for family unification, ③ Gosudae to keep fidelity, ④ Odeokdae to collect virtue and wisdom, ⑤ Sumi Waterfall to aspire to be a man of noble character, ⑥ Yocheondae for auspicious life, ⑦ Sumanheon and Gigungjae to be in pursuit of hermitic life, ⑧ Hwalsudam for development of family and study, ⑨ Mongjeong to repay favor of ancestors, ⑩ Seokgasan, a symbol of secluded life, ⑪ Hageowon to enjoy guarding graves in retired life. The spatial composition of Hageowon was realized through ① Yuhoidang's inside gardens(Naboji, Jucheondang, Odeokdae, Dogyeong, Back yard garden and others) ② Sumanheon(收漫軒) Byeolup or Yuhoidang's back yard gardens (Seokyeonji, Yocheondae, Sumanheon, Baegyeongdae, Amseokwon and others) ③ Chukgyeongwon of the artificial hill(which is also the east garden of Sumanheon, being composed of Hwalsudam, Sumi Waterfall and Gasan or 12 mountaintops) ④ the scenic spots for unifying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re Cemetry garden in the back hill of the village,

† Corresponding Author : Kim, Hyun-Wu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Wanju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0, E-mail : lakhw@hanmail.net

the temple of Yeogyeongam, Sansinkak(ancestral ritual place of folk religion) and Geoeopjae(family school). On top of that, Chagyeongwon Garden(借景園) commands a panoramic distant view of nature's changing beauty through the seasons.

Key Words : YuHoidang(Gwon Yijin 權以鎭), Hageowon Garden(何去園), Natural Landscape System, Sumanheon(收漫軒) Byeolup, Chukgyeongwon(縮景園) of the artificial hill(石假山)

국문초록

대전 무수동에 가꾸어진 유회당 원림(하거원)의 산수체계 및 문화경관 구성요소를 '유회당집'(18C)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회당(권이진)은 보문산 남쪽 지맥 무수동에 자신의 이상세계를 반영한 하거원 원림을 경영했다. 즉, 1707년 마을 뒷동산에 선묘를 자리잡은 이후 시묘소(삼근정사) 조성, 1713년 납오지, 1714년 반환원, 그리고 1727년에 외부공간을 확충하여 하거원 원림을 완성했다. 마을의 산수체계는 대둔산-오대산-보문산이 차례로 이어져 주맥을 이루는데, 주산인 보문산의 지맥(응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구릉이 청룡이며, 보문산의 서쪽 지맥(천근과 사정)이 백호이고, 남산은 안산이 된다. 한편, 주륜산에서 발원한 서남쪽 내(川)가 외명당수가 되고, 응봉에서 발원한 계류(내명당)가 마을 동쪽을 관류하여 남서쪽으로 출수되는 배산임수 체계를 보여준다. 마을 동쪽으로 펼쳐지는 계류와 자연 암반 등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조성된 초기의 정원(반환원)은 납오지, 활수담, 고수대, 수미폭포, 도경(복숭아나무 오솔길), 오덕대(감나무), 매룡(매화나무), 샘, 배경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반환원을 확장하여 조성된 하거원은 계류와 4개의 연못, 5개의 대(臺)와 3개의 대숲(竹林), 그리고 석가산 축경원 등 수목석 경색(景色)이 어우러진 원림을 구축했다. 의미경관 요소로 ① 부모님 추모를 위한 유회당, ② 가문 화합을 염원한 납오지, ③ 절개를 귀하게 여긴 고수대, ④ 덕과 지혜의 의미를 일깨운 오덕대, ⑤ 고매한 인간됨을 염원한 수미폭포, ⑥ 상서로움을 취한 요천대, ⑦ 은일자의 삶을 대입시킨 수만헌과 기궁재, ⑧ 가문과 학문 발전을 염원한 활수담, ⑨ 선조의 은혜를 일깨운 몽정, ⑩ 은둔자의 모습을 표현한 석가산, ⑪ 묘역지킴의 기쁨과 은퇴후의 삶을 위한 하거원 등을 들 수 있다. 하거원의 공간구성체계는 ① 유회당 내원(內園: 납오지와 죽천당, 오덕대, 도경과 후정 등), ② 수만헌 별업(유회당 後園: 석연지와 요천대, 수만헌과 배경대, 암석원 등), ③ 석가산(12봉) 축경원(縮景園, 수만헌 東園: 활수담과 수미폭포, 12봉 가산 등), ④ 마을 뒷동산에 자리잡은 선조들의 묘원(墓園), 그리고 여경암 암자와 산신각(공동체 토속신앙 제례처), 거업재(서당) 등은 유불선(儒彿仙)이 융화된 선경처로서 원근의 계절미를 시원스럽게 부감(俯瞰)할 수 있는 차경원(借景園)으로 구성된다.

주제어 : 유회당(권이진), 하거원 원림, 산수체계, 수만헌 별업, 석가산(12봉) 축경원

Ⅰ. 서론

역사문화경관은 그 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진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 측면은 물론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동양의 역사관은 상고주의가 원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사대부들은 옛 선조들의 정신적 산물과 당시 문화와의 소통을 이상적인 가치관으로 삼았다. 이러한 사조는 사회문화 전반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지(志)'와 '기문(記文)' 등을 편찬하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주거공간과 원림경영 등에서도 작정철학 및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집에는 자연환경과 함께 시대에 따른 가치관, 제도, 생활문화 등 다양한 면이 반영되었다(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주택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련의 주거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의 제도이고, 또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적 현상이므로 형태나 조직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주거공간은 그 사회, 문화의 한 형태적 표현으로, 형태를 배태하게 된 시대적 사회, 경제, 사상,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기주와 김성우, 1989).

그동안 전통 주거공간의 연구는 건축과 조경분야에서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특히, 조경학적 측면에서 현존하는 전통정원의 물리적인 형태와 공간구조, 배후사상과 정원문화, 정원소재와 작정미학, 취경 기법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통주거공간의 정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원기(園記) 등의 기록이 희소하게 남

아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 성과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권이진〈權以鎭, 1668(현종 9)~1734(영조 10), 호조판서, 평안도관찰사 등 역임, 외조부는 송시열, 고모부는 윤증〉의 문집인 '유회당집'을 통해 마을과 묘역, 주거 및 정원문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발굴, 번역되었다. 즉, 18c에 편찬된 '유회당집'은 전통정원의 구성과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마을의 자리잡기와 산수체계는 물론 원림의 작정의도와 연도, 그리고 정원공간과 시설 요소 등에 대한 묘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중 유회당 원림(하거원) 관련 문헌은 '무수동기', '반환원기', '명당실기', '하거원기' 등이 대표적인데, '무수동기'는 무수동 마을과 묘소에 대한 산수체계를, '반환원기'와 '하거원기'는 유회당을 중심으로 원림구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반환원기'와 '하거원기'는 정원 관련 '원기(園記)'로서 조선 중기 사대부 계층이 경영했던 향촌 살림집의 산수체계와 토지이용 및 원림경관 등 전통정원문화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독보적인 사료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회당집'에 수록된 원전에 근거하여 유회당의 산수체계와 토지이용, 그리고 하거원 원림에 도입된 문화경관 및 정원요소 등을 추적하여 당시 사대부 계층의 작정의도와 공간구성 체계 등 원림문화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조선 중기 사대부의 원림경영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뿐 아니라 하거원의 문화경관 추적은 물론 원형 복원과 무수동 마을의 역사경관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대전시 중구 무수동 94번지에 위치한 유회당을 중심으로 마을과 선묘, 그리고 삼근정사를 포함한 하거원 원림권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분석에 이용된 사료로는 권이진(1668~1734)의 문집인 '유회당집'에 수록된 '무수동기'(1689), '반환원기'(1714), '명당실기'(1719~1725 추정), '하거원기'(1727), 그리고 국역본인 유회당집(안동권씨 유회당종중, 2006)이 활용되었다. 특히, '무수동기'는 선묘의 산수체계를, '반환원기'는 유회당의 초기 정원 모습을, '명당실기'는 유회당의 건립목적과 변천과정을, 그리고 '하거원기'는 공간구성체계 및 정원요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한편, '무수동팔경도'와 지형도, 위성사진 등은 공간분석의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무수동팔경도(① 유회당과 여경암 경관, ② 보문산 남면과 보문사, ③ 유회당 종가와 마을, ④ 장수공가와 중뜸마을, ⑤ 유등천과 옥녀봉, ⑥ 유천 버드내, ⑦ 갑천의 선유놀이, ⑧ 분실)'는 권이진이 호조판서로 재직시(1729년경)에 무수동 경승을 화공에게 그리게 한 것으로 오늘날 칠폭 만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이진의 4대손 권감(權堪: 1760~1823)의 '제무수동도' 기문에 "선조께서 탁지부(度支部)를 맡아 노심초사하시다(先祖憂勤按度支) 고향 그리워하시던 날 이 그림 그리라 하셨네(戀鄕當日命圖斯)"라 되어 있어, 무수동팔경도의 제작시점이 권이진이 호조판서(1727. 10~1729. 7)로 재직시 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분석에는 마을의 자리잡기와 관련하여 '무수동기'를 광역적 차원에서 배산권역, 지역적 차원에서 마을의 사신사(四神砂)와 물길구조,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선묘권역으로 구분하여 산수체계를 추적하였고, '반환원기'와 '하거원기'를 분석하여 원림의 공간 체계 및 정원요소 등 특징을 도출하였다. 즉, 광역적 측면에서 무수동의 산수체계는 무수동기의 기록과 산경표를, 지역적, 미시적 측면에서 산수체계는 1919년 지형도와 문헌기록을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원림의 변천과정은 '명당실기', '하거원기', '반환원기' 등을 비교분석하여 규명하였는데, 반환원은 1714년에 조성된 초기의 정원 모습으로 정원요소에 대한 명명이 구체화되지 않은 반면, 하거원은 원림이 완성된 1727년 모습으로 문화경관 등 정원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명, 기술하고 있다.

Ⅲ. 결과 및 고찰

1. 권이진의 생애와 유회당

권이진(1668~1734, 호는 유회당 또는 수만헌)은 공주사람 권유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22세까지 외조부인 우암 송시열에게 사사하였고, 고모부인 명재 윤증과는 사승(師承)관계로 연결된다. 1694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동래부사, 승지, 호조판서, 평안도관찰사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유회당집'이 전해지는데, 여기에 수록된 '무수동기', '하거원기', '명당실기', '반환원기' 등에는 마을의 산수체계는 물론 유회당 원림(하거원)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다. 이들 기문을 종합해 보면 권이진은 1707년에 선묘의 시묘소를 조성하였고, 1708년에 몇 칸 집의 유회당을 지었다. 1713년에는 납오지를 파고, 1714년 2월 이후에 반환원[1]의 윤곽이 이루어졌다. 1719년에는 조카 권해징이 유회당을 수리하여 10여칸에 이르렀고, 1725년에 경상도 관찰사를 그만두고 살림집과 정원을 크게 수리하였으며, 2년 후인 1727년에 유회당과 정원의 여러 모습을 확충하면서 하거원 원림이 완성되었다.

무수동팔경도(그림 2)의 첫째 폭은 유회당과 여경암 전경을 묘사한 것으로, 유회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재실인 기궁재(寄窮齋), 유회당의 뒤편 우측이 삼근정사(三近精舍)이고, 담장 사이로 표현된 협문은 묘소의 출입문이다. 하거원의 주요 건물인 유회당(有懷堂)의 당호는 명나라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의 '명발불매 유회이인(明發不寐 有懷二人)' 시의 '부모를 간절히

생각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품고자 한다'에서 취한 것이며, 자신의 호로도 사용하였다. 특히, 삼근정사는 숙종 41년(1715)에 세운 시묘소인데, 삼근(三近)은 선친의 묘, 동쪽 골짜기의 천석(泉石), 4계절 풍광미가 뛰어난 남쪽 언덕 꽃동산 등 3곳이 가까이 함을 취하였다.

오늘날 유회당 공간구성은 유회당, 기궁재, 유회당 판각, 삼근정사(수만헌, 하거원)와 선영 묘역, 여경암 등으로 구성되며, 정원요소로는 활수담, 배롱나무와 노송, 석연지 등이 남아있다. 즉, 마을 안쪽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유회당은 충효문(忠孝門) 삼문을 지나 활수담 연못 중심을 통과하는 돌다리를 건너면 화계가 펼쳐지고 높은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원기'와 '하거원기'에는 유회당 동쪽에 납오지를 조성했으며, 활수담은 수만헌 동쪽에 별도로 조성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현재의 활수담 연못과 돌다리는 후대에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유회당(대전 유형문화재 6호)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형태로 앞면과 측면에 난간으로 둘러진 툇마루가 있고, 가운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실인 기궁재(奇窮齋)는 'ㄱ'자형 건물로 1920년대에 개축하였다. '하거원기'에 의하면 뜰의 동쪽 초당 2칸 헌을 수만이라 하고, 실을 기궁이라 하여 수만헌과 기궁재가 하나의 건물로 묘사되었는데, '무수동팔경도'에는 현재와 같은 기궁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유회당 내부는 중앙에 너른 대청을 두었고,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였으며, 좌측은 구족재(求足齋), 우측은 불기재(不欺齋)로 편액하였다. '명당실기'에 의하면 1708년에 지어진 유회당은 1719년에 개축하여 좌측은 불기, 우측은 구시[2]로 기록하고 있는바 구족재와 불기재 또한 초기 유회당의 모습에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회당 오른쪽에 판각(대전 유형문화재 20호)이 자리하는데, 1734년에 별묘로 지어져 1822년 중건되었고, 현재는 유회당 문집 판목(板木) 246판〈권이진의 증손 권상서가 순조 초(1807~1827)에 판각〉이 보존되고 있다.

그림 1. 유회당 앞뜰에 재조성된 활수담

표 1. 권이진의 생애와 유회당

년도	연혁	비고
1668	공주사람 권유의 셋째 아들로 출생	외조부(송시열), 고모부(윤증)
1690	송시열, 윤증에게 사사	1689년 무수동기
1694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출사	
1707	선조의 시묘를 조성	현: 대전시 중구 무수동
1708	몇 칸의 유회당 신축	시묘에서 300무 거리 아래
1710	동래부사	
1713	납오지	연못
1714	반환원	'반환원기' 기술
1715	삼근정사 및 여경암 조성	부모의 은덕 추모, 후손 강학
1719	유회당 재축	불기재, 구시재
1725	경상도 관찰사	
1727	유회당 확장(9칸 규모), 하거원 조성	반환원 확충, '하거원기' 기술
1728	호조판서(재직 기간: 1727. 10~1729. 7)	무수동도 제작
1732	평안도 관찰사	
1734	유회당(권이진) 졸, 별묘	사당

유회당 북동쪽에 자리한 삼근정사(三近精舍)는 권이진이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여 1715년(숙종 41) 부모의 묘소 가까이에 시묘소(侍墓所)를 세운 것에 연원한다. 이곳에는『三近精舍』,『收慢軒』,『何去園』등의 현판이 걸려 있다. 수만헌은 범석호(范石湖)의 시 "松淑永寄孤窮滂滂 泉石終收漫浪身"에서 따온 이름이며, 하거원은 춘추전국시대에 타국으로 망명하려다 선영에 돌아온 고사에 근거한 명칭이다(유회당집, 2006).

오늘날 유회당 권역은 원래의 건물지에 유회당과 삼근정사, 기궁재 등을 증축하여 재현 또는 복원한 상태인데, 정원유적은 원형훼손이 심각하고 변형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2. 무수동의 산수체계

무수동은 원래 무쇠골로 부르던 곳인데, 권이진의 백부 무수옹(無愁翁) 권기(權愭)가 정착하면서 안동권씨의 세거지가 되었고, 마을 이름도 그의 호를 따 '무수'라 하였다. 무수동은 보문산 남쪽 계곡 사이에서 발원한 세 줄기의 물길이 만나 너른 들을 이루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이 아늑하게 감싸 있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관을 보여준다. 그래서 권이진은 오랜 벼슬

그림 2. 무수동도(대전시 유형문화재 44호)
(자료: 대전선사박물관, http://blog.daum.net/dkfwl66/6963091)

살이로 고향마을을 떠나 있었지만 고향의 정경을 그리워하여 팔폭 그림으로 곁에 두고자 하였다(그림 2).

다음은 권이진의 4대손 권감(權堪: 1760~1823)이 자신의 문집 '용와집'에서 읊은 '제무수동도' 전문의 내용이다.

先祖憂勤按度支　선조께서 탁지부를 맡아 노심초사하실세
戀鄉當日命圖斯　고향 그리시던 날 이 그림을 그리라 명하셨네
一花一木模本意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모사한 본 뜻은
某水某邱指點時　이 강물 저 언덕을 모두 가까이 두고자 함일세
… 중략 …
茂林修竹排鋪際　무성한 수풀 긴 대나무 늘어선 사이에
石層巖莽蒼涯　기이한 돌 겹겹의 바위 물가에 솟아있고
中有高堂棲息久　그 가운데 고당 있어 오래도록 쉴 만하고
上瞻先墓孝思追　위로 선묘를 바라보며 효심 키우네
七分修飾遺在　흡사하게 꾸민 그림 남겨 놓았으니
百世傳來敬玩宜　백세토록 전래하여 공경히 완상함이 마땅하리
麻詰舊圖良有以　왕유의 옛 그림 진실로 까닭이 있고
淵明歸意又兼之　도연명의 귀거래사 뜻 또한 겸하였네
先人重畵承先志　선인께서 그림 중히 여김은 선조의 뜻을 받듬이라
永慕吾心此詩　길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읊노라

무수동의 산수체계는 태조산에서 주산까지 이르는 배산권역, 그리고 무수동에서 지각되는 사신사와 물길, 그리고 안동권씨 묘역을 포함한 권이진 선친의 묘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수동의 자리잡기와 관련한 산수체계를 분석해 볼 때, 태조산은 대둔산과 덕유산에서 비롯된다. 산경표에 따르면 무수동까지의 산맥은 금남정맥인 대둔산에서 출발하여 금산의 계치에서 과협처를 이룬다. 금산의 계치를 과협처라 할 수 있는데, 과협[3]은 문자 그대로 '지나가는 고개'로, 풍수에서 혈처와 주산(현무) 사이의 고개를 말한다. 계치에서 동쪽으로 나간 능선은 서대와 식장산, 계족산으로 이어지며, 서대에서 나온 맥은 완전(完田)의 오대산에 이른다. 한편, 계치에서 완전에 이르기 전 석다령이 있는데, 평지가 되었다가 만길의 산으로 솟아난다. 이를 풍수 어의로 어병과 토성이라 하는데, 어병사(御屛砂)는 사(砂)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인자수지에 나오며, 토성(土星)이 우뚝 솟고, 방정(方正), 골립(骨立), 용치(聳峙)한 것을 말한다(김두규, 2005).

산경표에 의하면 무수동의 정맥은 대둔산-서대-오대산을 이루고,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오대산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은 맥은 보문산을 이룬다. 따라서 무수동의 산수체계는 북쪽의 보문산이 주산이 되고, 그 중심 능선이 유희당과 권유 묘의 중심 맥이 되며, 보문산의 서쪽 산맥인 천근과 사정은 백호가 되고, 오대산은 청룡이 되며, 보문남산은 안산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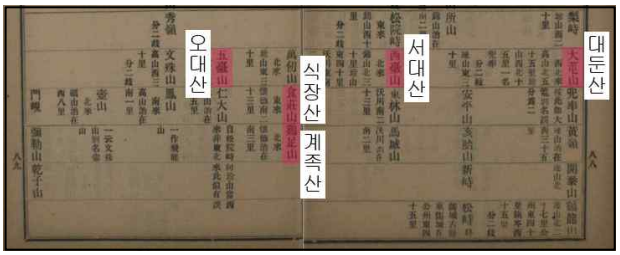

그림 3. 산경표에 나타난 무수동의 산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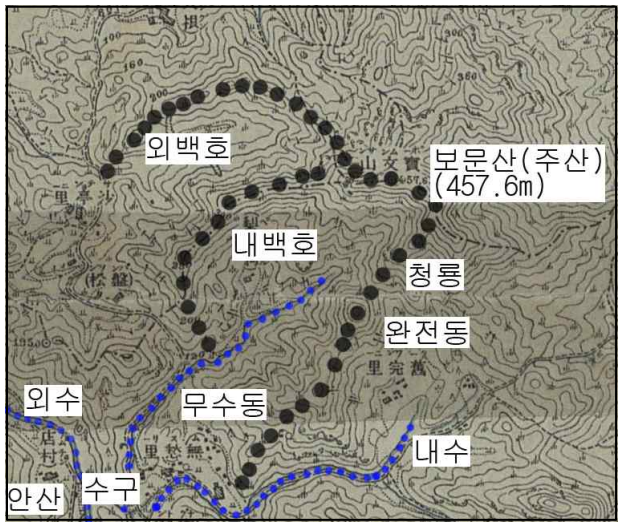

그림 4. 무수동의 산수체계(朝鮮五萬分一地形圖, 大田)
(자료: 公州十一號, 1919)

권이진 선친의 묘는 1707년에 현재의 자리로 이장되었는데, 1689년에 작성된 '무수동기'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선묘의 옛 자리는 현재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묘는 조산으로 보문산을 삼고 그 맥에서 흘러나온 지맥이 응봉을 이루는데, 응봉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산맥은 임간봉과 용유치가 되고, 용유치에서 나온 두 줄기는 묘소의 내백호와 외백호를 이룬다. 응봉에서 동쪽으로 나온 산맥은 청룡이 되고, 완전동(구완전) 동내를 가로 막는다. 안산은 임간봉과 용유치에서 나온 산맥이 남쪽으로 향해 묘소의 서쪽에서 안산을 이룬다. 묘소의 외수는 주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묘소의 서남간에서 흐르고, 내수는 완전에서 흘러와서 유회당의 옆을 지나 남쪽에서 모였다가 서쪽 방향으로 감추어진다.

3. 유회당 원림(하거원)의 변천

권이진이 46세(1714년, 숙종 40년) 때 무수동에 조성한 반환원(盤桓園)은 도연명의 귀거래사 撫孤松而盤桓(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서성이네)에서 뜻을 취했다. 집에서 뒷동산 계류를 따라 샘에 이르는 오솔길에는 복숭아를 심어 도경을 만들었는데, 샘 위쪽 계곡에 돌을 쌓고 모래를 채워 장마철에도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였으며, 복숭아, 해당화, 산당화, 모란, 작약, 장미를 심어 도원의 정취를 취했다. 특히, 계곡 위에는 감나무 2그루를 심어 너른 돌을 늘어놓고 그늘지게 하여 정자로 삼았고, 용을 닮은 매화나무(梅龍) 경관을 으뜸으로 즐겼다. 계곡을

파고 샘을 만들어 홈통으로 물을 이어 폭포처럼 연못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하였는데, 연못은 길이 20척, 폭 15척, 깊이 3척 규모로 물고기 수십마리를 길렀다. 못 가운데 돌을 쌓아 섬을 만들었고, 우뚝 솟은 2개의 괴석(검은 것과 붉은 것)을 두었으며, 옆쪽으로 굽 틀어진 소나무와 꼿꼿한 팥배나무를 심어 세한(歲寒: 지조를 잃지 않는 군자의 자세)의 뜻을 취했다. 못 아래쪽에는 단풍나무와 버드나무가 무성하고, 4~5무쯤 되는 샘 옆 동산에는 너른 바위가 널려있어 7~8명이 앉을 수 있는 너른 바위가 자리하고, 사초(莎草)가 뒤덮여 있어 봄기운을 물씬 풍기게 한다. 못의 동쪽 동산에는 진달래, 철쭉, 단풍,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데, 우뚝 솟은 반송이 서쪽을 향하여 자리했다.

권이진이 59세(1727년, 숙종 53년) 때 유회당 반환원을 확장하여 조성한 하거원은 춘추전국시대에 타국으로 망명하려다 선영에 돌아온 '예기' 곡례편의 고사에 근거한 명칭이다. 선묘 아래 300여무 거리에 9칸 규모의 유회당이 자리하고, 당의 동쪽에 납오지(納汚池: 냇물과 못은 더러운 것을 받아들인다)를 가꾸었으며, 산 허리에 고수대(孤秀臺: 도연명의 '사시'에서 취함, 소나무의 절개를 귀하게 여긴다)를 만들었다. 계류에는 돌다리를 만들고, 감나무 2그루가 드리워진 곳에 흙을 쌓아 오덕대(五德臺)라 하였다. 납오지 서쪽에 대나무 50~60줄기가 운치있게 자라고 버드나무 3그루를 거쳐 10여척 높이의 대나무가 연못을 동쪽으로 감싸는데, 죽천당(竹遷堂)이라 하였으며, 도경(桃徑)을 가꾸었다.

사방 수십무 크기의 뜰에 못을 조성하여 수미폭포를 만들었고, 뜰 서쪽에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너른돌이 자리하며, 매화나무가 매룡(梅龍)을 이루어 요천대(繞千臺: 주희의 시 '부매'에서 취함)라 하였다. 뜰 가운데 돌을 쪼아 사방 3척 크기의 연지를 만들어 연꽃을 심고, 장우담(丈藕潭, 한유의 시 '고의'에서 취함)이라 하였고, 사계화, 산당화, 석류화를 심었다. 2칸 규모의 수만헌(收漫軒, 범석호의 시에서 취함)을 두었고, 동쪽에 섬돌을 쌓았으며, 섬돌 아래 넓은 돌을 깎아 활수담(活水潭, 주희의 시 '관서유감'에서 취함)을 만들었다. 동쪽은 훤하게 트여 있는데, 계류를 건너기 위해 돌로 된 장교(長橋)를 도입했으며, 암반을 파서 솥 크기의 샘을 몽정(蒙井, 주역 '몽괘'에서 취함)이라 하였다. 몽정 남쪽 언덕에 높은 바위를 잘라 배경대(拜景臺)를 조성하여 조일(朝日)과 석일(夕日)을 즐겼으며, 동쪽의 평편한 바위는 누워 즐길 만하여 운와(雲臥, 두보의 시에서 차용)라 하였다. 활수담 서쪽에는 넓은 광교(廣橋)를, 아래쪽에는 방교(方橋)를 두었으며, 물이 꺾여 돌 틈 사이로 수미폭포를 이루도록 하였다. 방교의 남쪽에 6개의 바위가 측립해 있고, 바위 동남쪽 주위에 냇가의 괴이한 돌을 주워 12봉 가산을 만들었다. 첫 봉우리를 하방(何放, 왕의의 시 "벼슬을 버리니 참된 은둔자 되고 돌을 사 들이니 가산을 만들기 무방하네"에서 차용)이라 하였고, 2봉우리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도록 은통(隱筒)을 연결하여 몽정으로 이어지게 하였는데, 화봉(和峯, 노강삼의 시 "급한 폭포가 연기와 어울려 쏟아지네"에서 차용)이라 하였다. 남쪽 3봉우리는 출군(出群, 두자미의 시에서 차용)이라 하였고, 그 사이 3봉우리 골짜기는 신완(神剜, 한자의 시 "골짜기 동천은 신령이 깎은 듯 하네")이라 하였다. 그 아래 남쪽 3봉우리는 취규(聚虯, 전희성의 시 "가파르고 험한 산은 규룡이 모인 듯 하네"에서 차용)라 하였고, 1봉우리는 기융(氣融, 범석호의 시 "성대함은 기운이 융결한 듯 하네"에서 차용)이라 하였으며, 가산 주위에 단풍, 진달래, 송백(松柏), 회양목, 향나무 등을 심었다. 수만헌 뒤쪽에 샘을 두어 활수담에 이르도록 하였고, 화계를 두어 국화, 작약, 모란을 심었으며, 주변에 단풍나무, 매화나무, 벽오동, 버드나무, 대나무 등으로 운치를 더하였다.

전체적으로 하거원은 4개의 계류가 어우러지고 외나무다리를 포함하여 3개의 다리를 두었으며, 5개의 대(臺)와 3곳의 대숲을 가꾸었고, 복숭아나무, 장미, 무궁화, 배롱나무, 오얏나무, 살구꽃 등이 어우러져 계절미를 더하였다.

한편, 1707년에 터를 잡아 1714년에 조성된 반환원은 납오지, 활수담, 고수대, 수미폭포, 도경, 오덕대, 매룡, 샘, 배경대 등으로 구성되고, 1727년에 완성된 하거원은 반환원을 확장하여 4개의 소 계류와 3개의 다리가 어우러진 수경원을 조성하였으며, 5개의 대(臺)와 3곳의 대숲 그리고 가산이 어우러진 축경원을 구축하여 복숭아나무, 장미, 무궁화, 배롱나무, 오얏나무, 살구꽃 등 경색(景色)이 어우러진 선경적 동천세계를 구축하

표 2. '반환원'과 '하거원기'에 나타난 공간 비교

공간	반환원	하거원	비고
납오지	池長二十餘尺 廣十五餘尺 滀三尺。	堂之東有池 受自東注之溪爲澤	최초의 연못
泉	穿谿爲泉。	軒之後有泉出巖底焉	샘을 묘사
활수담	有魚數十頭。池中疊石爲島。	桃一樹出堂砌南...畜大小魚數十尾。	물고기 수십마리
고수대	松盤而杜直。歲寒之意挺如也。	貴松之節也	'세한과 절개'
운와와 활수담 사이	其上皆可坐。廣者可七八人。	平長而廣。可坐七八人。	칠 팔인이 앉을 수 있는 바위
도경	自泉抵堂。挾植桃花。以爲桃徑。	桃花樹六七在左右。號以桃徑	복숭아오솔길
오덕대	嶰上兩柹樹。…柹爲最之意。	以柿有五德也	감나무
매룡	特中以梅龍蟠屈薈蔚。	殆梅龍也	매화
배경대	西俯郊東秀嶺。以領一洞。	巖窿然以高。廣四五尺。長亦五六尺而斷	朝日과 夕日 拜景
가산	-	匝巖之東南而爲假山以圍之皆取澗石之怪者	12봉 석가산

그림 5. 유회당 공간 모식도

였다. '반환원기'와 '하거원기'를 비교하면, '반환원기'에는 구체적인 공간의 명칭이 기술되지 않은 반면 '하거원기'에는 각 공간의 명칭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두 기문의 공통점은 공간에 대한 묘사 방식이 같거나 유사하였다. 예를 들면 활수담을 묘사할 때 '물고기 수 십 마리'의 표현, 고수대 소나무의 '세한'과 '절개' 등의 표현들이다. 기록된 원문에 의거하여 종합하면 반환원과 하거원의 주요 공간과 경물요소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하거원 초기의 정원(반환원)은 후정의 샘과 계곡의 수경 요소를 뜰 안으로 끌어들여 연못을 조성하면서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곳은 유회당, 삼근정사(수만헌) 등 기거처로 겸용되었기 때문에 샘과 연못은 경관적 유희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반석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동쪽의 아름다운 봉우리에서 계곡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해 연못을 조성하고 화계와 가산 등을 갖추어 원림의 골격을 갖추었다.

결과적으로, 하거원 원림은 유회당 내원권역과 수만헌(삼근정사) 권역 그리고 축경식 정원인 가산권역으로 구성된다. 즉, 유희당 내원은 유회당을 중심으로 연못인 납오와 죽천당 그리고 도경과 그 뒤뜰까지의 영역이다. 수만헌을 중심으로 펼쳐진 외원은 수만헌과 석연지, 서쪽의 요천대 그리고 배경대와 암석원(운와), 활수담, 수미폭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산권역은 수만헌 동쪽지역으로 12가산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묘원권역은 선영에서 여경암까지의 영역이다.

4. 유회당 원림(하거원)의 공간구성

1) 유회당 내원(유회당에서 도경까지)

유회당의 내원은 유회당을 중심으로 연못(납오), 고수대, 오덕대, 죽천당, 그리고 도경으로 구성되었다. '하거원기'에 의하면 유회당은 선묘의 서쪽 약 300무 거리(약 270여 m)에 9칸으로 조성되었고, 그 동쪽에는 연못을 만들었다. 연못의 동쪽 산은 높이가 수십 길(1길은 약 3m)이다. 동쪽산의 산맥을 잘라 대를 조성하여 못 위에 임하게 했다. 대의 이름은 고수대인데, 이것은 대 위의 소나무의 절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수대 옆쪽은 암석이 경사지게 내려오고 도랑에 돌다리를 만들었다. 돌다리를 건너면 두 그루의 감나무가 높고 낮게 드리워 있고 흙을 쌓아 오덕대라 명하였는데, 이는 감나무가 갖는 5덕에서 유래된 것이다. 연못(납오)의 서쪽에 대나무와 버드나무가 있고, 버드나무길을 따라 내려가다 동쪽으로 올라가면 대나무가 늘어서 죽천당이 자리한다. 대나무를 끼고 있는 죽천당의 뒤뜰에 들어서면 석류와 왜철쭉이 가꾸어졌고, 뜰이 끝나는 곳에 돌계단을 올라가면 복숭아나무가 5~6주 어우러지는데 도경이라 하였다.

즉, 유회당 내원권역은 유회당과 연못을 중심으로 동쪽 공간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당의 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계곡과 구릉)과 수경(水景)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선체계의 경우 수미폭포, 요천대, 그리고 활수담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연계되는데, 아름다운 계류를 중심으로 무릉도원이

펼쳐지는 격물치지의 선경처라 할 수 있다.

2) 삼근정사 별업(수만헌에서 배경대까지)

수만헌(삼근정사) 별업권역은 수만헌을 중심으로 동산 위쪽으로 펼쳐지는 배경대, 운와 등의 정원과 수만헌 아래에 펼쳐지는 활수담, 수미폭포 정원으로 구성된다. 수만헌은 유희당의 가장 뒤쪽의 뜰에 조성되었는데, 초당 2칸을 수만이라 하였고, 실을 기궁이라 하였다. 수만헌을 중심으로 위쪽에 펼쳐지는 후원에 장교, 몽정, 배경대, 석굴과 암석원(운와)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수만헌을 중심으로 앞뜰에 펼쳐지는 전원에는 활수담, 광교, 방교와 암석원 그리고 수미폭포 등이 도입되었다. 즉, 수만헌에서 장교를 건너면 수십 보 되는 넓은 바위가 모두 측립되어 있는데, 동쪽을 파서 물길을 만들고 활수담으로 물을 흘러가게 했다. 이 물의 근원은 약 400~500m 떨어진 곳의 우물(몽정)에서 비롯되고, 몽정의 남쪽 언덕에는 너비가 4척(약 120cm), 길이가 5~6척(약 150~180cm)인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바위를 깎아 배경대라 이름하였다. 배경대 아래에는 석굴과 암석원을 두어 운와[높이가 약 1자(약 30.3cm), 넓이가 4~5척(약 120~150cm)]라 하였다. 운와에서 몇 무(1무는 약 90cm)를 내려오면 활수담(수만헌의 동쪽에 위치)이 자리하는데, 사방 몇 자 되는 넓은 돌로 섬돌을 쌓았고, 사방에 벽립한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띠처럼 드리우고 떨어졌다가 구슬 같은 거품을 뿜도록 하였다. 한편, 남쪽 뜰은 돌을 깎아 작은 곡류수를 만들어 물이 흘러나오게 했으며, 활수담의 서쪽에 돌다리(광교)를 만들었는데, 물이 새는 것을 막아주고 동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광교 아래 너른 바위는 우묵하게 깊으며, 돌을 뚫고 나오는 활수담의 물이 고이도록 하였다. 또한, 반듯한 돌로 다리(방교)를 만들었고, 수미폭포로 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수미폭포는 도경의 위쪽에 자리하고 10여척 되는 못에서 물이 돌 틈으로 떨어지며 5~6척 높이의 폭포가 된다. 한편, 수만헌 뒷뜰에 샘이 있고 2단의 화계가 조성되었으며, 뜰의 중앙에는 석연지가 놓였다.

그림 6. 유회당 전경

그림 7. 삼근정사에서의 유회당 조망

그림 8. 삼근정사

그림 9. 사당

즉, 수만헌 별업에는 동쪽 산과 계곡의 물을 이용하여 연못 그리고 돌을 이용한 수경원(水景園)이 조성되었는데, 몽정-배경대-운와-수만헌과 활수담-장교와 방교-연못과 수미폭포로 이어지는 연속된 수경(水景)이 펼쳐진다.

3) 하거원 가산

가산권역은 방교 남쪽의 암석원의 동남쪽 주위를 둘러싼 것으로 기암괴석으로 짜여진 12봉우리 가산을 중심으로 경영된 축경형 정원이 된다. 가산은 중국의 옛 시문[4]에서 의미를 따 하방(1), 화봉(2, 3), 출군(4, 5, 6), 신완(7), 취규(8, 9, 10), 처묘(11), 기웅(12)이라 명하였다. '하방'은 은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산의 첫 번째 봉우리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봉우리는 '화봉'인데, 그 형태는 시냇물을 끌어 통으로 높게 한 다음 가산의 허리로 나오게 하고, 아래로 돌틈에 물이 흐르게 하였다.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봉우리는 '출군'이라 하였고, 세 봉우리 사이에 봉우리가 추가되어 3개의 골짜기를 이루었는데, '신완'이라 하였다. 형태는 위가 둥글고 아래가 가파른 것이 있고, 아래가 펼쳐지고 위가 뾰족하다고 묘사되고 있다. 출군의 남쪽에는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의 세 봉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를 '취규'라 하였고, 열한 번째 봉우리는 텅 빈 골짜기가 이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 '처묘'라 하였으며, 열 두번째 봉우리는 광대하고 후중하며 뾰족하지 않고 가파르지 않아 여러 봉우리 중 가장 크고 두터우니 '기웅'이라 하였다.

즉, 석가산을 주제로 경색을 갖춘 이 가산은 시냇가에서 채취한 괴석을 이용하여 봉우리와 골짜기 그리고 물을 끌어들여 심상경관(心象景觀)을 형상화한 형태로 여러 봉우리에 단풍, 두견, 송백, 향목 등을 심어 심산유곡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 가산은 선경의 동천세계를 12봉의 의미경관으로 형상화 하여 은둔자로서의 심경과 이상향을 희원하는 축경식 정원이라 할 수 있다.

4) 묘원 및 여경암(선영 묘역 및 여경암까지)

묘원은 수만헌에서 북쪽으로 300여무 거리(약 270m)로 마을 뒷동산 권역에 해당된다. '하거원기'에 의하면 '예기' 곡례편에 근거하여 〈하거〉라는 의미를 차용하였는데, 묘역과 하거원의 관계성을 "이곳은 선대의 묘소가 있는 곳이니 어찌 이곳을 버리고 떠나겠는가? 천석(泉石)은 논할 바 아니고 떠나지 않음

그림 10. 안동권씨 묘역: 유회당의 부친 권유의 묘역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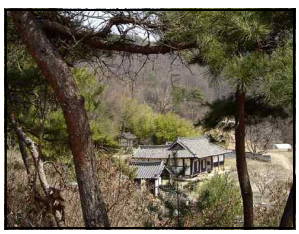

그림 11. 여경암

표 3. 유회당 원림의 공간체계 및 구성요소

구분	공간구성 체계	구성요소
유회당 내원	유회당을 중심으로 연못(납오), 고수대, 오덕대, 죽천당, 그리고 도경	수미폭포, 요천대, 납오지, 활수담, 장우담 등 수경요소, 물길, 무릉도원 산책길,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梅龍), 버드나무, 사계화, 산당화, 석류, 납오지(단풍, 철쭉), 복숭아나무, 감나무, 연꽃, 요천대(장미, 무궁화, 배롱나무, 자두나무, 살구꽃 등), 석분 등
삼근정사 별업	수만헌을 중심으로 동산 위쪽으로 펼쳐지는 배경대, 운와 등의 정원과 수만헌 아래 펼쳐지는 활수담, 수미폭포	몽정-배경대-운와-수만헌과 활수담-장교, 방교-연못과 수미폭포, 물도랑 등의 수경요소, 경관석, 거북바위, 朝日과 夕日을 위한 반석, 샘(夢井), 화계, 돌다리, 석연지, 3그루 복숭아나무, 대나무, 물고기 등
하거원 가산	방교 남쪽 암석원 동남쪽 주위를 둘러싼 기암괴석 12봉우리 가산 축경원	12봉의 괴석과 폭포수, 석가산(단풍, 두견, 송백, 황양, 향목), 진산(眞山: 단풍, 두견, 철쭉, 반송, 단내(丹柰)), 매화, 벽오동, 버드나무, 대나무, 샘, 2단 화계(국화, 작약, 모란 등) 등, 죽통(竹筒), 선경적 동천세계 의미경관, 석가산 축경원 등
묘원 및 여경암	마을 뒷동산 안동권씨 선영 묘역, 암자(여경암), 산신각과 서당(거업재)	무수동 마을 후원, 권유의 묘소 등 안동권씨 묘원, 대나무 숲, 마을공동체 토속신앙 제례처, 안동권씨 자제들의 강학처 시설 등

을 즐거워하려 함이네"라고 기술하고 있다. 오늘날 이곳 묘역에는 유회당의 부친 권유(1625~1684, 우암 송시열의 사위로 전의현감, 의금부 좌찬성 등을 엮임)를 비롯하여 안동권씨 유회당 종중 묘역으로 조성되어 있다.

한편, 무수동 마을 북동쪽 산록에 경영된 여경암(대전시 유형문화재 제18호)은 권이진이 48세 때인 1715년(숙종 41)에 조성한 곳인데,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강학처로 활용되었다. 무수동팔경도의 첫째, 폭 위쪽 우측 상단에 보이는 조그마한 두 채의 집은 여경암과 거업재(居業齋)이다. 여경암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자제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지은 여경사(餘慶寺)에서 유래된 것이고, 거업재는 춘추정신을 깨닫고 삼강을 바르게 하는 올바른 군자의 길을 걷게 한다는 뜻으로 이름지어졌다.

오늘날 경내에는 암자로 꾸민 여경암이 있고, 후면 우측에 산신각이 자리하며, 전면에 서당인 거업재가 일곽을 이루며,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외부경관 차경을 위한 경관기법을 엿볼 수 있다. 여경암은 정면 5칸, 측면 3칸에 2칸씩을 덧붙인 'ㄷ'자형이고, 거업재는 정면 6칸, 측면 1칸의 '一'자형이며, 산신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작은 불단과 산신도를 걸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매년 산신제를 드리고 있다(보문산공원 무수리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2009).

Ⅳ. 결론

권이진의 문집(유회당집)에 수록된 '무수동기', '하거원기', '반환원기', '명당실기' 등의 원기(원기) 관련 기록과 '무수동도' 등에 근거하여 유회당의 산수경관 체계 및 하거원 원림의 공간구성 요소를 추적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회당 권이진은 40세 이후 대전 보문산 남쪽 지맥 무수동에 자신의 이상향을 반영한 별업과 원림을 조성했는데, 1707년 마을 뒷동산에 선묘를 자리잡아 시묘소(삼근정사)를 가꾸었고, 1708년에 묘역 아래 유회당을 지었으며, 1713년에 납오지, 1714년에 반환원을 확충했다. 1719년에 유회당을 10여칸 규모로 증축했으며, 1727년에 외부공간을 확충하여 하거원 원림을 완성하였다.

2. 무수동은 대둔산-서대-오대산으로 이어지고, 오대산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은 보문산이 마을의 주산을 이루는데, 보문산의 지맥(응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구릉이 청룡에 해당되며, 서쪽 지맥(천근과 사정)이 백호에 해당되고, 남산이 안산에 해당된다. 한편, 주룬산에서 흘러오는 서남쪽 내(川)가 마을의 외명당수가 되고, 응봉에서 발원한 내명당 계류수가 마을 동쪽을 관류하여 남쪽에서 서쪽으로 출수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체계를 보여준다.

3. 마을 뒷동산에 선영의 묘원을 조성한 후 유회당 주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작정된 반환원은 납오지, 활수담, 고수대, 수미폭포, 도경(복숭아나무 오솔길), 오덕대(감나무), 매룡(매화나무), 샘(몽정), 배경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거원은 반환원을 확장하여 4개의 계류와 3개의 연못이 어우러진 수경원을 조성하였으며, 5개의 대(臺)와 3곳의 대숲 그리고 석가산 등 축경원을 갖추어 수목석 등 주변 경색(景色)이 어우러진 선경세계를 구축하였다.

4. 의미경관 요소로는 ① 부모님을 추모하기 위한 유회당, ② 가문의 화합을 염원한 납오지, ③ 절개를 귀하게 여긴 고수대, ④ 덕의 의미를 일깨운 오덕대, ⑤ 고매한 인간됨을 염원한 수미폭포, ⑥ 상서로움을 취한 요천대, ⑦ 은일자의 삶을 표현한 수만헌과 기궁재, ⑧ 가문과 학문 발전을 염원한 활수담, ⑨ 선조의 은혜를 일깨운 몽정, ⑩ 석가산을 은둔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하방, ⑪ 선대의 묘역지킴과 은일자의 삶을 즐기기 위한 하거원 등을 들 수 있다.

5. 유회당 원림(하거원)의 공간체계는 ① 유회당 내원, ② 별업인 수만헌(삼근정사), ③ 축경형 정원인 석가산(12봉), ④ 마을 뒷동산 안동권씨 묘원 그리고 여경암 차경원(借景園) 등으로 구성된다. 즉, 내원 권역은 유회당을 중심으로 연못인 납오지와 죽천당, 요천대와 오덕대 그리고 도경, 후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만헌 권역은 유회당의 후원으로 석연지, 그리고 수만헌과 배경대, 암석원(운와) 등 수석정원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석가산권역은 수만헌 동쪽지역으로 활수담과 수미폭포

그리고 12가산(하방, 화봉, 출군, 신완, 취규, 처묘, 기융)이 어우러진 축경원이자 선경의 이상세계를 구현한 은자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안동권씨 묘역과 여경암은 선조들을 추모하며 영면을 기원한 묘원(墓園) 권역으로 후손들의 강학,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 산신각 등 사회적 지속성과 환경적 복거관이 구체적으로 투영된 낙토(樂土)이자 복거처(福居處)가 된다.

주 1) 초기에는 반환원이라 명했는데, 도연명의 〈귀거래사〉 중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서성이네(撫孤松而盤桓)"에서 유래한다.

주 2) 仍揭以有懷。闢左右室。以爲燕息讀書之處。號左曰不欺。號右曰求是。

주 3) 과협은 [청오경], [금낭경], [지리신법] 등에 등장하지 않고, [명산론]에 학슬(鶴膝)* 봉요(蜂腰)*, 단(斷: 跌斷)*이란 용어로 등장하며, [감룡경]에 "이종단처(離蹤斷處)", "봉요과처(蜂腰過處)", "질단과처(跌斷過處)" 등이 과협 의미로 쓰였다. 혈이 형성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리정종] 산룡어류 편에서 "과협은 두 산 사이에 끼여 있는 고개를 말하는데, 맥이 과협의 가운데를 지나간다(過峽者, 兩山相夾, 而脈從中過也)"라 하고 있다(김두규, 2005).

주 4) 名以何妨。取汪禕投簪自信爲眞隱。買石何妨作假山之句。山之所始。故以是名焉。其次二峯。瀑水出焉。引溪而入筒以高之。出於假山之腰。俯而流於石罅。噴珠躍玉。飛空而下。其下也若哽若咽。若嗔若叱。滃然而落。決決而流。入於蒙井。其流有文。其入有聲。爲竹筒以激之。欲以大其聲也。名其峯曰和烟。取魯三江急瀑和烟瀉之詩。稍南而疊三峯。有上圓而下峭者。有下舒而上尖者。又其一則雙石並屹然。而其狀若嚬若笑。若有人端拱而俯視者。取杜子三峯意出羣之句。名以出羣。三峯之間。開坼有洞者亦三。名以神剜。取韓子有洞若神剜之句也。稍南而亦有三峯壁立以俯深壑。白巖爲之趾。參差相拱。取錢希聖巉崒虯龍聚之句。名以聚虯。直南而一峯則谺谽靡迆。亦有穴可窺。取范石湖險穴覰沓沓之詩。名以覰沓。最南而將止者。盤礴厚重。不尖不削。而於諸峯最大以厚。取范石湖霮若氣融結之詩。名以氣融。凡得峯十有二。其所以爲名者。皆取古人假山之詩。

인용문헌

1. 권감(權堪: 1760~1823). 용와집.
2. 규장각 한국학연구원(2009). 조선 양반의 일생. 서울: 글항아리. pp.194-195.
3. 김기주, 김성우(1989).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 조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9(1): 190.
4. 김두규(2005). 풍수학사전. 서울: 비봉출판사.
5. 금강문화유산연구원(2009). 보문산공원 무수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6. 신상섭(2007).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경관 찾기.
7. 신상섭(2011).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의당의 공간체계와 조경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20.
8. 신상섭, 노재현(2011). 안평대군 비해당 원림의 의미경관과 조경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9. 안동권씨 유회당종중(2006). 국역 유회당집. 서울: 경인문화사.
10. 이종묵(2009).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p.16.
1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xcvbnm7997&logNo=10092252160
12. http://blog.daum.net/dkfwl66/6963091
13. http://gallery.kostma.net/main/doc_content.asp?group_id=131
14. http://koreandb.nate.com/history/people/detail?sn=9710

원 고 접 수 일: 2011년 8월 9일
심 사 일: 2011년 8월 30일 (1차)
2011년 9월 2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1년 9월 23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